데스크 시각



홍 행 기 경제부장

좋은 강사들의 강연은 대부분 '청중에 게 감동을 안겨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광주일보에서 운영하는 '리더스 아 카데미' 초빙강사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수많은 명 강사들의 강연을 접해 본 결론 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사를 분 류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데, '감동 의 종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치유(Heal→ ing)를 주는 강사와 통찰력(Insight)을 주는 강사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치유'를 주제로 하는 강연은 청중들에 게 눈물과 감동을 함께 가져다준다. 강사 개인의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대부분 으로, 강연이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온다. 눈시울을 훔치던 청중들은 '나처럼 모두가 고민이 있구나. 나는 혼자 가 아니야'라는 생각에 후련해진 가슴을

치유와 통찰

안고 강연장을 떠난다.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느낄 수 있 지만 효과가 지속하는 시간이나 문제해 결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찰력을 주는 강연은 다르다. 강연 내 내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인 다. 가장 큰 특징은 '아하!'라는 감탄사가 자주 들린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서 '아하 경험(Aha experience)'이라고 불리는 반응인데,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갑 작스러운 통찰이 생기는 순간 자신도 모 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찰이 '상황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 라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독일 형태심리학(Gestalt psy→ chology)의 대표 주자 볼프강 쾰러 (Wolfgang Kohler)가 1971년 발표한 '유인원의 지각실험'은 '통찰이란 무엇인 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일명 '통 찰력 실험'으로 불리는 이 연구에서 쾰러는 '동물들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 물 간의 관계를 분석 · 인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낸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험에 등장한 원숭이 '술탄'은 손에 쥔 짧은 막대기로 우리 밖 과일을 잡아당 겨 먹기 위해 애를 쓰지만 계속 실패한다. 우리 밖에는 기다란 막대기가 놓여있다. 잠시 동작을 멈추고 우두커니 (상황을) 바라보던 술탄은 갑자기 작은 막대기로 우리 밖 긴 막대기를 끌어당긴다. 그리고 긴 막대기로 과일을 끌어당겨 먹는 데 성

쾰러는 이처럼 동물이 '전체 상황을 구 성하는 요소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 악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상황을 전혀 새롭게 (머릿속에서) 재 구성하는 것'을 통찰이라고 정의했다.

공한다.

쾰러의 실험에서 밝혀진 것처럼 통찰의 목표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라면,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리미트 리스(Limitless)는 통찰의 '효용가치'를 돌아보게 해준다. 무능한 작가인 주인공 이 우연히 신약 NZT를 복용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영화는, 인간의 뇌가 100% 가 동되면서 생기는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보고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학습능력을 갖게 된 주인 공은 이를 기반으로 무한한 통찰력을 갖 추게 되고,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 를 추구하는' 정치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 어간다. 통찰력의 효용가치를 '더 나은 미

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무한한 통찰력을 갖춘 주인공이 직업이 '정치 인'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엇갈 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며 국가를 이 끌어야 하는 정치인에게 통찰력이야말 로 반드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기 때 문일 것이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인에게서는 통 찰력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국정원의 대 선 불법개입, 간첩증거 조작사건 등에서 보여준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혼선과 무능은 통찰력을 나침 반 삼아 국민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혼 돈과 불신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가경제가 흔들 리고, 북한의 위협과 함께 미국, 중국, 일 본에 포위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국민을 설득 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 새로운 미래를 만 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 지금 우리 정치인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이병우 단국대학교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의 눈물은 큰 역할을 한다. 어떠한 말보다도 위력을 발휘한다.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은 "눈 물 속에 신성함이 들어 있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 다. 소설 삼국지에도 눈물이 큰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유비의 눈물 과 조비의 눈물을 들 수 있다.

유비는 '눈물의 통치학'으로 정국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유명하다. 눈물 연 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였다. 유비는 조조나 손권처럼 든든한 후원세력이 없었다. 오직 민심만이 자신

눈물의 정치학

의 원군이였기에 '눈물 연기'를 할 수 밖

조조의 아들 조비의 경우도 후계자 경 쟁에서 눈물이 큰 역할을 했다. 조조가 출 정할 때, 경쟁자 조식은 수려한 문장으로 부친의 공덕을 찬미하여 조조를 흡족하 게 했다. 반면에 문장력이 뒤지는 조비는 조조 앞에서 정신이 아찔하도록 목놓아 울었다. 결과는 조비의 한판승이었다.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유명 한 눈물은 아무래도 고(故) 노무현 전 대 통령의 2002년 눈물과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눈물을 꼽을 수 있다. 노 전 대통 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눈물을 흘리는 TV광고로 유권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 다. 잔잔한 감동을 줬던 그 광고 카피는 '이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종선에서 한 나라당의 전멸 위기를 눈물로 구했다. 당 시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몰 리자 박 대통령은 정당 대표 TV연설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 달라"며 눈물의 호소를 해 당을 기사회생시켰다. 50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121석을 확보했다.

눈물이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은 아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강행군인 선거 일정 속에 "머리 손질은 누가 도와주냐"는 질문을 받자 "쉽지 않 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힐러리 캠프는 미국판 철의 여인이 그토록 바라던 인간 적 면모를 보여줬다고 반겼다. 그렇지만 지지율을 일시 만회했을 뿐 "대통령에 오 를 만큼 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줘 결국 패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황산성씨 1993년 2월 여성 첫 환경처장관에 발탁되며 관심을 받았으나 그 해 4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의 지적에 흥분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그리 나약해서 장관직을 수행하겠 느냐"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고, 울보 이 미지를 벗지 못한 황 장관은 그해 12월 장 관직에서 물러났다.

2011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지만 민심은 끝내 그의 주 장을 외면했다. 서울시장직을 내놓겠다 는 승부수도 통하지 않았다.

최영재 한림대 교수가 2004년 발표한 논문 '정치인의 눈물과 이미지 형성에 관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정치인의 눈물은 따뜻하고 이타적인 개인 성품 이미지를 고양시키지만 공적인 이미지인 지도력 이미지와 호감 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상승세일 때 정치인의 눈 물은 유권자의 호감을 증대시키지만, 하 향세일 때는 급속도로 호감도를 떨어뜨 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정치 인의 눈물 효과는 상황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난지 3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 서 눈물을 흘렸다. 사고 13일만인 지난 4 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간접 사과를 한 뒤 5번째 사과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 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기 고

슬로 라이프(Slow life)가 대안이다



최성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가스누출, 폭발사고, 해난사고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테러와 정 보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 다. 사고시마다 대안으로 매뉴얼 제작과 시설 점검을 들먹이지만 그것으로 안전 이 확보되지는 못했다. 사고는 예고 없다 고 강조하지만 분명히 사고는 징후가 있 다. 우리사회 안전 무엇이 문제일까. 앞으 로도 나만은 사고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사고는 분명 예고가 있다. 이를 입증하 는 하인리히법칙이 있다. 미국의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 는 산업재해에 관한 1:29:300이라는

의 중상자가 발생하면 그 전에 이미 동일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 발생했으며, 같 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 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이다. 최근의 각종 사고를 되짚어 보게 한 다. 산재로 한 해 2000명이 숨진다면 전쟁 이나 다름없다. 산업현장의 장비와 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이 많지만 예산 때문에 제때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고 정해진 내 용연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체된 노 후 장비는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과 감한 투자와 규정에 따른 감독기능 부활 만이 다음 차례가 될 지도 모르는 나의 가 족을 지키는 일이다. 바른 직업윤리로 무 장하고 일을 보람과 책임으로 바라본다

유명한 법칙을 발견한다. 산업재해로 1명

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중심의 '스피드 경영'과 지 나친 성과주의는 작업준비와 안전점검 등 작업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 과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가리 지 않고 결과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시각 은 비민주적이고 몰사회적이다. 어린 시 절 학교에서 배운 윤리가 바로서지 못하 는 사회라면 구조적 모순일 수 있다. 근본 이 서야 나라가 선다.

사회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역사 적으로 우리 백의 민족은 본래 홀로 자족 하고 이웃과는 상부상조하며 세상을 관 조할 줄 아는 민족성을 가졌다. '빨리빨 리'로 대변되는 작금의 풍조는 근대 산업 화의 병리현상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바 라본 재독 철학자 현병철교수는 '피로사 회'로 진단하여 잔잔한 반향이 일었다. 다 발하는 각종 사고는 피로사회의 부작용 으로 보인다. 매년 주어지는 '% 성장'의 지표에 쫓기다 거기에 길들여지고 결 국은 스스로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 돌진 하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고에 이르는 것이다. 사회도 병에 걸렸으면 진단이 필 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 경제력, 인정받을 만큼 일어섰으니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 아 갔으면 한 다. 매뉴얼만 만들어서 될 일 아니다. 이 배에 돈이 아니라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 각할 때 매뉴얼이 의미가 있다. 이제는 매 뉴얼을 들여다 볼 정신적 여유가 필요하

근본적으로는 생활방식을 슬로라이프 (Slow Life)로 바꿔야 한다. 스피드 경영 이 속도와 효율 경쟁이라면 슬로 라이프 는 느림과 여유의 경영이다. 이는 최근 슬 로푸드, 슬로시티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 의 조류가 되고 있다. 슬로 라이프란 특별 한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민주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작업장은 물론 삶의 공 간에서 규정된 본래의 속도를 찾아가자 는 것이다. 제품 생산부터 가치와 기능 등 소비자 후생을 먼저 생각하고, 소비의 전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 하자는 것이다. 착한 음식, 착한 소비가 결국 건강한 지구를 만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다. 시간이 좀 걸리 더라도 내 삶의 가치와 가족의 행복을 생 각할 여유를 가질 때, 주변을 둘러보며 안 전의식을 갖게 된다. 바쁘다고 예방조치 를 소홀히 하다보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하 게 되고 또 다시 소만 잃게 된다.

社 說

광주·전남도 '관피아' 폐해 근절 나서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고 한다. 관피아는 중앙부처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광주·전남 상당수 공기업에도 퇴직 공무 원들이 기관장이나 간부를 맡고 있다. 따 라서 유착 비리 차단과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출신 공무원의 관련기 관 재취업)에서도 보았듯이 그 적폐는 심각하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 이다 보니 감독관리 업무는 뒷전인 채 눈감아주기와 향응, 상납 등 부패 고리 가 결국 대참사를 불렀다.

광주시의 경우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3분의 1이 공무원(공기업 포함) 출신이다. 전남에도 공무원 출신 30% 가량이 공기업 및 출자기관 대표 이사나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 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 집하고 관피아 개입 비리에 대한 수사

에 착수키로 했다. 부실대출, 대형 건설 사업 수주, 정부 물품 납품 비리 등에 퇴직공직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들 이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검찰은 철저하게 들여다보 고 엄정하게 도려내야 한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퇴직 관료의 재취업 통로를 좁히 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을 더 강화해 관피 아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겠다는 게 골 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를 일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 간부 임용 때는 철저하게 전 문성을 따져 경쟁력을 채용 최우선 조 건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수시로 업 무 감찰을 통해 사소한 비리도 엄벌해 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피 아 폐해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한 인선과 함께 사후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를 넘어선 광주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광주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 어서고 있다. 의경이 관용차로 중대장을 집에다 데려다 준 뒤 뺑소니사고를 내는 가 하면 경찰관이 아내를 폭행하고, 음 주 상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느 슨한 기강으로 과연 시민의 재산과 생명 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광주 남부경찰에 입건된 박 모 상경 은 지난 18일 오후 6시39분께 남구 방 림동 한 도로에서 긴급 관용차량을 몰 고 가다 서 모군(17)의 오토바이를 치 어 골절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고 한다. 박 상경은 이날 5·18 기념행사 후 중대 장 김 모 경감을 자택에 데려다 주고 복 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상경이 운전했던 관용차는 긴급 출 동 시 선두에서 지휘·감독하는 차량으 로, 규정상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또 광수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 모경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아파 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 을 행사해 입건됐다. 특히 지난 12일에 는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이 모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 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 어린이집 승 합차를 들이받아 9명이 부상을 입는 사 고를 냈다. 일부 경찰 간부들은 이 경사 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다 들통나 경질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지탄받고 있 는 마당에 광주경찰마저 공직 기강 해 이가 이 정도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 강 확립을 떠들어왔지만 여론이 잠잠 해지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1회성 행 사'에 그쳤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몇몇 사람의 기 강 해이로 치부해선 안 된다. 경찰은 자 성과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공권력도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無等鼓・ジ

통계의 허상

'통계학이라는 비밀스러운 단어는 증거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진 오늘 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혼란에 빠뜨 리는데 사용된다. 또, 사물을 과장하거 나 극도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자주 이용된다. 물론, 사회나 경제의 동향, 기업의 경영상태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통계적 방법과 통계적 용 어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통계'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발표자 와, 사용된 단어의 뜻

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들이 함 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황당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 1954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대릴 허프가 출간한 '새빨간 거짓말, 통계(How to lie with statistics)'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상하게도, 지금으 로부터 무려 60년 전 이야기인데도 전 혀 낯설지가 않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 (GNI)이 올해 3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 는 전망이 LG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 간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그러나 서민 체감경기는 '글쎄요'다. 발표된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바뀐 통계기준과

환율효과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정부와 기업의 소득이 포함된 것도 'GNI 3만 달러'기대감에 일조를 했다.

시점을 바꿔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식 GNI는 2만6205 달러였고, 이 가 운데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 는 비중은 56% 정도였다. GNI의 절반 을 조금 넘는 1인당 1만5000달러가 실 제 손에 쥐는 소득이 되는 셈이다. 올 해 GNI 3만 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손 에 쥐는 돈은 지난해와 별로 달라지지

> 않을 것이라는 건 손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역시 '통계는 통계일 뿐'인 거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비판가인 H. G. 웰스는 "유능한 시민이 되려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 다. 통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 다"라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가 기껏 GNI 통계 하나로 '국민 모두가 잘 살 고 있다.'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려는 것 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하지만, 좋은 국민이 되려면,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거나,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해보려는 자 세는 있어야 할 것 같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6·4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6·4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내 지역에 '안 전'을 뿌리내리는 변화의 시작을 위해 우 리 모두 한 표를 행사하자. 유권자가 행사 하는 한 표의 가치는 너무도 크다. '내 한 표가 변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 하나 쯤이야' 등의 생각은 이번 선거에서는 과

감히 버리자. 지난 1794년 3000여 개의 연방 법률을

영어와 독일어로 반포하려는 미국 하원의 표결에서 1표 차로 영어가 미국어로 단독 지정된 사례, 1839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에드워드 에버렛이 본인 의 표를 행사하지 못해 1표 차로 패배한 사 례, 1876년 미국의 19대 대통령인 러더포 드 헤이스의 선거인단투표 1표차로 당선 된 사례, 1923년 히틀러가 나치당 당수가

된 사례, 1954년 우리나라의 사사오입 개 헌파동 사례 등이 모든 사례가 1표차로 역 사를 쓴 대표적인 경우이다.

6·4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 하는 것이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 이라는 프랭클린 P. 아담스의 말처럼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대표를 뽑 지 않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중국 한나라시절 유학자 동중서의 '해현 경장'(解弦更張)이라는 고사가 있다. 동중 서가 한 무제에게 올린 현량대책(賢良對 策)에서 유래한 것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 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 정치적으 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비유하는 뜻이 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지닌 '해현경 장'의 고사성어를 실천할 때다.

▲최현구·경기 안성

光则日報

사 회 부 2200-663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항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